

## 광주 문화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

美 선진 예술재단 연세 화상 인터뷰

올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는다. 기존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광주공예예술재단을 통합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이 새해와 함께 공식출범하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광주 문화재단이 문화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수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문화재단 출범에 맞춰 워싱턴 존 F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예술센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예술센터의 리더들로부터 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듣는 화상인터뷰를 3회에 걸쳐 실는다. 화상인터뷰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립 28일 광주아메리칸 코너에서 진행됐다.

### 1 브레트 이건 워싱턴케네디센터 소장

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케네디 센터의 디보스 인스티튜트(De Vos Institute of Arts Management)에 대해 소개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문화관광부 처럼)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부처(ministry)가 없다. 대신 케네디 센터나 링컨 센터 등 민간 예술재단들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재단은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

한다. 사실 연극배우로 무대에 서기까지 부딪혀야 했던 '커튼 뒤'의 고층들이 예술경영자들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흔히 예술경영자들은 아티스트를 다루기 힘든 아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아티스트들은 경영자들을 자신들의 명령에만 복종하기를 바라는 까칠한 부모로 본다. 이처럼 두 집단이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예술이 탄생할 수 없다. 창조적인 예술경영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화재단이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



구립 28일 광주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린 브레트 이건 소장과의 화상인터뷰 모습. 토마스 언더우드 주한미국대사관 지역총괄담당관, 박진현 선임기자,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사진 왼쪽부터).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市場이 채워줄 수 없는 예술가와 관객 틈 메워줘야”

영한다. 하지만 기부는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기금확보는 미국 예술기관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 때문에 최근 케네디센터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예술경영이다. 디보스 인스티튜트는 재단이나 예술기관의 리더(Art leader)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예술경영지도자 과정, 국제펠로십 등을 통해 판드레이징에서부터 마케팅, 관객개발, 인건비 감축 등 다양한 전략들을 교육한다.

-디보스 인스티튜트에서 맡고 있는 당신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이나 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consulting)해주는 일이다. '예술을 컨설팅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21세기 문화재단이 주목해야 할 분야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예술기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이나 개인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미술관이나 공연장은 유능한 인력을 거리로 내쫓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줄여야 했다. 예술재단이 경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관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상품(Art production)을 제공할 수 없다. 이처럼 예술센터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예술컨설팅이다.

-마이클 카이저(Michael Kaiser) 케네디센터 이사장의 적극적인 구매를 받았다고 들었다. 세계적인 문화CEO가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궁금한데.

▲아마도 예술이 창작되는 과정(process)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다. 오랫동안 연극배우로 활동했던 아티스트로서의 경험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문화재단을 구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목표 수행 지역민 신뢰 확보 우선

문화시민 길러내는 예술교육 중요

무엇보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재단의 목표(mission)를 충실히 실현해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왜 재단을 설립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재단의 성패는 주어진 미션을 충실히 달성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초심을 잃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광주문화재단은 교육전담부서가 없다.

▲케네디센터는 매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1천100만 명의 관객들과 소통한다. 미국의 예술재단들은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여주는 예술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예술교육은 미래의 문화시민들을 길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이 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해선 안된다.

-재단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게 있다면.

▲재단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살피고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령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작가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스타작가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하자면) 지역문화재단은 시장이 채워줄 수 없는 예술가(공급자)와 관객(소비자)의 틈을 메워줘야 한다. 상품성이 약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의 흐름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라.



존 F 케네디센터 디보스 인스티튜트를 이끌고 있는 브레트 이건(Brett Egan) 소장. /사진촬영팀 일렉신더

### 연극배우 출신 예술경영의 귀재

#### ■ 브레트 이건은

연극배우에서 예술재단의 수호신으로 변신한 예술경영의 귀재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그는 지난 2001년 그레이스 왕비 재단이 매년 연극, 춤, 음악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수여하는 '그레이스 왕비 상'(Princess Grace Awards)을 수상했다. 하지만 배우로 성공하고 싶었던 그는

뮤지컬 'General Bullmoose'에서 자신의 노래가 삭제되는 아픔을 겪은 후 무대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경영컨설턴트로 커리어를 바꿨다. 하버드대를 거쳐 뉴욕 맨해튼 댄스 컴퍼니의 디렉터, 미국 국무성의 국제문화교류 담당관 등으로 활동했다.

마이클 카이저 존 F 케네디센터 이사장의 권유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디보스 인스티튜트 소장을 맡고 있다.



1971년 개관한 케네디 센터는 5개의 극장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예술재단이다.

### 1971년 개관한 세계 제1의 예술재단

#### ■ 케네디 센터는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는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에 걸맞는 예술센터를 건립하자고 주창한 것이 계기가 됐다. 예술센터 건립에 두팔을 걷고 나선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미국 굴지의 기업총수들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해 건립기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오찬 모

임이 있는 지 불과 몇달 만에 그가 암살당하면서 새 예술센터는 추모건축 프로젝트로 바뀌었다.

미국연방정부의 예산 4천300만달러와 재력가들의 기부로 1971년 역사적인 개관을 했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 등 5개의 극장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예술재단이다. 연간 2000개의 프로그램이 열리며 미 전역에서 약 1억 1천만 명이 문화혜택을 즐긴다.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無독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시공전 → 바탕정리 및 고압수크린 → 하이브리드 외벽프라이머 → 크랙보수 및 취약부위보강 → 하이브리드 외벽마감1차 → 하이브리드 외벽마감2차 → 시공후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칼라단열외벽방수공법 - 특허 제0544371호 -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法人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처: 동구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